염색체 검사, 언제 하면 좋은가요?

- 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
- ☐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
- ☐ 난임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
- ☐ 반복 유산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
- ☐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
- ☐ 염색체 이상 가족력이 있거나 출산력이 있는 경우

최근, 초혼 연령에 증가로
임신에 대한 불안감 및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산전 검사 시 부모 염색체 검사를 한다면
염색체 이상 유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한 번의 염색체 검사로
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세요.
일반적인 검사처럼 혈액채취를 통하여
염색체 검사가 가능합니다.

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.

염색체 검사
Chromosome Test

GC 녹십자의료재단 GC 셀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
대표번호 1566-0131 **Fax** 031-8061-6302
www.gclabs.co.kr

GC 녹십자의료재단

Chromosome Tes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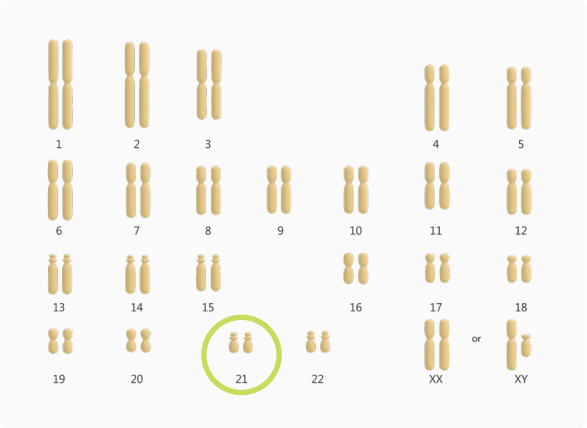
염색체 검사

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한
염색체 수적·구조적 이상 확인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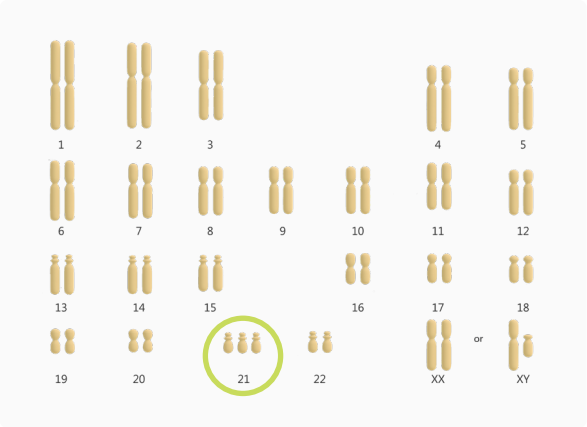
염색체 검사란?

염색체 검사는 환자의 **염색체 수와 구조 이상을 평가**하는 검사입니다. 각각의 염색체는 특정 부분마다 수천 개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, 이 유전자들은 인체의 신체적 특성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성장, 발달,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

정상 염색체와 다운증후군 염색체



정상 염색체(46, 성염색체)



다운증후군 염색체(47, 성염색체, +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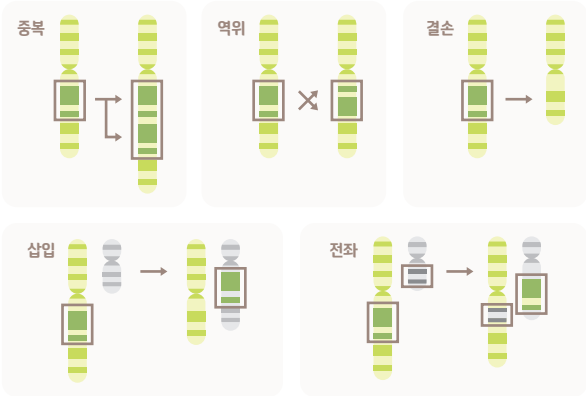
염색체 이상의 종류

염색체 수적 이상

상염색체 22개 + 성염색체 2개(XX, XY) = 총 46개

구분	질환명	핵상	염색체 특징	증상
상염색체	에드워드 증후군	2n+1 =47	18번 염색체 3개	정신지체, 심장기형, 입과 코가 작다.
	다운 증후군	2n+1 =47	21번 염색체 3개	작은 키, 정신지체, 지적 장애, 심장기형, 양쪽 눈 사이가 멀고 머리가 작다.
성염색체	클라인펠터 증후군	2n+1 =47	XXY	남자, 불임
	터너 증후군	2n-1 =45	X	여자, 불임, 작은 키

염색체 구조적 이상



중복 Duplication : 일부분이 이중으로 존재
역위 Inversion : 단편이 뒤집혀 회전
결손 Deletion : 염색체 일부 소실
삽입 Insertion : 비상동염색체간 일부 삽입
전좌 Translocation : 비상동염색체간 서로 교환

염색체 검사 적용 대상

염색체 검사 대상	검사 추천 이유
사산아의 병력이 있는 산모, 배우자	염색체 구조적 이상의 보인자 여부 확인
반복 유산을 경험한 산모, 배우자	
35+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	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확률 증가, 임신 전 검사로 자연임신과 체외수정 중 임신 계획 수립
착상 실패 및 불임을 겪는 산모, 배우자	착상 실패 및 불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음 임신을 준비함

- 보통 산전 검체로는 융모막 세포(CVS), 양수 세포(AF), 제대혈(Cord blood) 등을 사용하고, 출생 후에는 말초 혈액의 림프구를 주로 사용합니다.

- 유산된 태아 (POC) 의 염색체 검사를 통해 유산의 원인을 확인하여 다음 임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- 산전 검사 시 부모의 염색체 검사를 한다면 부모의 염색체 이상 유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* 만약 태아 염색체 검사의 이상 시 원인 파악 (부모로부터의 유전 여부)을 위한 부모 염색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